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순천, 히어리의 시작

이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울 식물을 상상해 본다. 복수초, 생강나무, 산수유, 매실나무... 모두 매해 겨울 추위가 다 가지 않은 초봄에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이다. 이 개화 목록 중에는 히어리도 있다. 황갈색의 가느다란 가지마다 노란 종 모양 꽃이 피어나는 식물. 나는 근처 광릉숲의 히어리 꽃을 보면서 '비로소 봄이 왔구나' 실감한다. 물론 이곳의 히어리는 스스로 번식해 자라난 것이 아니라, 원종을 증식해 심은 개체다.

일본인 명명자 이름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우리나라 지역 곳곳을 조사해 발견한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기록을 남겼다. 당시 우리나라에 흔한 대표적인 식물학자로는 나카이 다케노신과 우에키 호미키가 있다. 우에키 호미키 선생은 우리나라에 애착을 꽤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까지 인생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보냈으며, 박사 논문 주제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 연구였다. 1924년 그는 전라남도 순천 조계산 송광사 근처에서 발견한 신종 식물에 송광납판화란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이 이름은 송광사 부근에서 발견한 식물로 꽃잎이 말랍을 바른 것과 같다는 의미다. 그렇게 식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20여 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 1세대 식물학자인 이창복 선생은 송광납판화를 히어리라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인간이 심은 것이 아닌 스스로 번식해 자라난 '자생 식물'로서의 히어리를 본 경험이 내게는 두 번 있다. 한 번은 학부 시절 견학으로 광양에 가서였고, 또 한 번은 수목원에 다니던 시절 순천으로 출장을 갔을 때였다. 둘 다 전라남도에서 발견한 것이고, 또 둘 다 히어리를 보리라 생각지도 못한 순간의 발견이었다. 식물은 늘 고대할 때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뜬금없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히어리라는 이름으로 부른 연구에는 여러 속설이 있다. 자생지 근처의 마을 사람들이 이 식물을 히어리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하고, 꽃잎이 얇아 희어 보여서 히어리라 불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나는 히어리라는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든다. 기억하기도 쉽고 식물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나는 멸종 위기 식물을 주제로 하는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 당시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동물 2급이었던 히어리를 관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작

업 중이던 2012년 히어리가 멸종 위기 목록에서 해제되어 이 식물로는 전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의 스케치가 소용없게 됐다.

식물은 살아 있는 생물하기에 언제나 프로필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기후 변화로 급변하는 자연 현상에 의해 바늘잎나무 군락이 모조리 죽어 버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멸종 위기 식물을 복원 증식하는 데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식물 세밀화가가 평생 식물 공부하고, 최신 연구 경향에 밝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러나 송광납판화가 히어리로 불리고, 멸종 위기종이 자생지 개체가 많은 식물이 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식물이 처음 발견된 순간에 관한 정보다. 히어리가 일본 식물학자 우에키로부터 한국에서 발견되고 명명된 식물임은 학명 (Corylopsis coreana Uyeki)으로서 영원히 남는다.

히어리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대량 증식에 성공하여 전국 곳곳에서 조경수로 심어지고 있다. 자생식물이다 보니 워낙 우리나라 환경에서 잘 생장하는 데다 도시 오염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히어리를 수목원과 공원, 도시 화단에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순천 조계산에서 처음 발견된 히어리라는 식물이 지나온 백여 년간의 역사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박정열 매곡한방병원 원장

허리 건강

몸 생활 습관과 운동이 중요한 질환은 없다.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이다. 앉는 행위는 엉덩이가 상체를 다 받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앉을 때 좋은 자세로 앉으려고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부득이 오래 앉아서 일을 한다면 한 시간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걷는 운동, 또는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동작을 반복하면서 허리와 하체에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

저림 증상이 동반된다면,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운동은 삼가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나 치료를 먼저 받고, 상태를 파악한 후에 운동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리에 시달리거나 수술을 받은 후라면 상태에 따라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재활 운동은 수술 후에 힘이 빠진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켜 빠른 회복을 도와 준다. 어느 정도 재활 운동의 기간이 지나면 앞에서 말한 여러 운동이나 물속에서 걷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으로 하체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허리 운동은 현재 허리의 상태나 통증에 따라 운동의 종류나 강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소엔 허리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운동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만약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나지 않고, 통증이 있어도 2-3일 이내에 스스로 사라지는 정도나 하루나 이틀 정도 허리가 빠르고 무거운 느낌의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허리와 복부, 하체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기를 권한다. 이런 분들은 허리 근육과 복부의 근육을 같이 자극하는 플랭크나 하체를 단련하는 스쿼트를 많이 추천하며, 요가 동작의 하닌인 코브라 자세,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허리에 다 좋은 것은 아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이 있듯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나쁜 운동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리만 숙여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하게 하는 이러한 동작은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 동작이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과격한 운동이나 너무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운동도 조심해야 하며, 윗몸 일으키기나 발끝을 잡기 위해 숙이는 동작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으로 가급적 삼가야 한다.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을 하기 어려워 운동량이 적은 겨울에는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손쉽고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말자.

이와는 다르게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나고, 허리 통증이 심하여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다리에

기고

마이데이터에서 마이스토리로



임정모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영부본부장

와 심, 그리고 힐링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받지 않는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금융정보 통합 조회, 맞춤형 금융상품의 자문과 추천, 개인정보의 삭제-정정 요구, 신용정보의 관리, 급리인하 요구권의 대리 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활동 등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진화되었으면 한다. 마이데이터가 마이스토리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기 힘든 많은 정보들이 소중하게 보관되고 결합되어 더욱 탄탄하고 독창적이며 감성적인 이야기들로 거듭나 완성되었으면 한다.

금융 당국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연결되는 정보 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예금·대출금·보험 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소비·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절세·저축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 관리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 요구권, 열람 청구, 삭제 요구 등 정보 주체로서 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단 금융 정보 뿐 아니라 국제·지방세·관세,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등 유용한 공공 정보도 손쉽게 수집·관리 가능해진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어 발생하는 그늘도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특정 계층의 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계층은 상호금융의 주 고객인 농림 어업인 및 고령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도 덴마크의 미래학자 토폴 렌센 교수의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는 "미래는 기업, 지역 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라고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의 정보가 단순히 재무적인 것이 아닌 각 개인과 그들의 가족, 직장,

그러한 의미에서 이어령 교수가 제시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 '디지로그' (Digilog)란 용어의 의미를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 자칫 각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아날로그적 감성이 더해져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미를 잃지 않기를. 마이데이터가 마이스토리로, 그리고 마이스토리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어우러져 가길 꿈꾸며 농업·농촌에 기반을 둔 농협 상호금융이 그 역할을 선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침하 사실 누락...감리마저 부실투성이였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직전 제출된 감리 보고서에는 그보다 한 달 전 발생한 바닥 침하 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공 및 안전 관리 전반이 양호하다고 평가돼 감리마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올해 초 영하권의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 같은 공정 차질에도 보고서에는 지난해 말 기준 계획 공정이 60.3%였지만 62.6%의 실적으로 103.8%를 달성했다고 기록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현장 작업 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201동 붕괴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03동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 일부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광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화정아이파크 1·2블럭 신축공사 2021년 4분기 감리보고서'에는 붕괴·도과·낙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건축공사에서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사 진행 상황을 빠짐없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침하 사실이 누락되거나 공정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것은 감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감리 기관은 종합 분석 의견에 "보통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시공·품질·안전 관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골조 공사의 경우 공정표상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한

더욱이 시공 전반이 양호하다는 보고서를 서구청에 제출한 바로 다음날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경찰은 현장에 상주했던 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폭증하는 오미크론 변이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행에 따라 광주·전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그제 광주에서 확진자 227명(해외 유입은 8명)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2월 6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기존 델타변이보다 2-3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방역 당국과 시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별진료소의 대기 줄도 길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8-14일 전체 변이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이 80%를 차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오늘로 꼭 2년이 됐다. 우리나라는 한때 'K-방역'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 시책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방역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코로나가 2년째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시민들 또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방역 태세가 다소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는 어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은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긴급 휴원 조치를 한다"면서 "광주 공동체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춤을 강력히 권고한

결과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방역 당국과 시민들 모두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이쯤 되면 고층 아파트들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브랜드 중에서도 브랜드라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공사 중 붕괴됐다는데, 다른 고층 아파트들로 눈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광주에서만 그랬을까. 무너진 곳을 제외한 다른 부실은 없을까. 준공 검사를 마친 다른 아파트들에서는 왜 이렇게 하자가 쏟아지는 것일까. 공급증이 꼬리를 문다.

전문가들은 공공의 개입을 통한 주택 안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노동자주택법·공공주택법 등이 제정되고, 전문위원회들이 설치된 것은 이때부터다. 지자체에게

공공의 실종

주택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19세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에서 시작됐다. 산업이 도시를 장악해 일지라 생겨나고, 농지개혁에 소작농들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

도 주택 건설 및 감독 권한이 광범위하게 주어졌다. 토니 가르니에, 로버

주거가 본래 용도인 아파트가 이제는 투기를 포함한 투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하기에 공

트 오웬, 타이타스 솔트 등은 모범적인 주택 단지를 직접 조성하며 선도를 내갔다. 21세기 대한민국 도시는 건설업이 지배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딱바로 주택을 짓고 있는지, 높은 아파트가 주변 경관이나 도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주택 건설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시·규제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는 공공에 있다. 지금 광주에 공공은 어디

공해야 아파트가 공

다. 토니 가르니에, 로버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